

해리스, 트럼프에 우위...전대 컨벤션효과는 없었다

여론조사 지지율 48%로 트럼프에 4%p 앞서...월즈, 호감도 상승 로이터통신 여론조사 "경제·범죄 이슈에 대한 트럼프 우위 약해져"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밀라 해리스 부통령이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로 근소한 우위를 이어가고 있으나 전당대회에 따른 컨벤션 효과는 보지 못했다는 여론조사가 28일(현지시간) 나왔다.

여론조사업체 모닝컨설트가 민주당 전당대회 종료 다음 날인 23일부터 3일간 전국의 7818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27일(현지시간) 공개한 결과(오차범위 ±1%)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4%포인트 많은 48%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이런 격차는 지난주와 같은 것으로, 전당대회 개최에 따른 상승세는 관측되지 않았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후보직 사퇴로 지난달 등판한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 22일 밤 대선 후보직 수락 연설을 통해 자신의 국정 비전을 제시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차별점을 강조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맞대결이 성사된 지난달 말 이후 일일 추적 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진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모닝컨설트는 밝혔다.

이와 관련, 해리스 부통령과 언론 간 '허니문'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47%는 지난 한 주간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 주로 긍정적인 뉴스를 들었다고 답했으며 부정적 뉴스를 들었다는 응답은 32%에 그쳤다.

반대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 긍정적 뉴스를 들었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31%였으며 부정적 뉴스를 들었다는 답변은 46%를 기록했다.

컨벤션 효과가 없는 해리스 부통령과 달리 '동네 아재' 이미지로 전당대회장을 누빈 민주당 부통령 후보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의 경우 호감도가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월즈 주지사의 호감도는 전당대회 전(39%)보다 3%포인트 오른 42%를 기록했으며 비호감도는 36%로 동일했다.

한편 로이터통신 여론조사에서는 선거 핵심 정책 이슈인 경제 및 범죄 문제에 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우위가 약화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로이터가 이날 보도했다.

1028명의 전국 유권자를 대상으로 지난 23-25일 실시된 조사에서 경제 문제와 관련, 전체 응답자의 43%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40%는 해리스 부통령의 접근 방식을 선호한다고 각각 답변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3%포인트 우위는 7월말 조사(11%포인트 우위)에서 크게 낮아진 것이며 오차 범위(±4%포인트) 내다.

범죄 문제의 경우 지난달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접근 방식을 선호하는 답변이 5%포인트 더 많았으나 이번에는 해리스 부통령과 40%로 동률을 기록했다.

다만 이민 문제의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선호(45%)가 해리스 부통령(37%)보다 높았다. /연합뉴스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밀라 해리스 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 마지막 날 행사에서 풍선에 둘러싸여 있다. 이날 해리스 부통령은 민주당 대선 후보직을 수락했다. /연합뉴스

트럼프 "내달 10일 해리스와 TV토론 합의"

CNN 때와 규칙 동일...해리스 측은 합의 여부 입장 없어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음달 10일 개최 예정인 첫 TV토론과 관련, "카밀라 해리스 동지와의 토론에 대해 급진 좌파 민주당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이 토론은 펜실베이니아 필라델피아에서 업계에서 가장 불공정한 ABC 7 뉴스가 생중계할 예정"이라면서 이같이 전했다.

그는 토론 규칙과 관련, "지난 CNN 토론과 동일하다"면서 "토론은 서서 하며 후보자는 노트나 커닝 페이퍼(cheat sheet)를 가져올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ABC 방송은 이번 토론이 공정하고 공평한 토론이 될 것이며 어느 쪽에도 사전에 질문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에서 승리했던 조 바이든 대통령과 6월27일과 9

월 10일에 두차례 TV토론을 진행키로 합의했다.

이후 바이든 대통령이 6월 27일 CNN TV토론 뒤 지난달 21일 대선 후보직을 사퇴하자 9월 토론은 바이든 대통령의 뒤를 이어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된 해리스 부통령과 진행키로 했다.

그러나 해리스 부통령측이 발인 순서가 아닌 후보자의 마이크 음은 소거하는 CNN 토론 때의 규칙 등에 반대하면서 양측간 토론 규칙을 놓고 기싸움이 진행됐으며 이 과정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날 토론 불참을 시사하기도 했다.

해리스 부통령 측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표에 대해 아직 입장을 내지 않은 상태. /연합뉴스

세계 가상화폐 백만장자 17만명

'10억달러 이상' 28명 1년새 95% ↑ ...나카모토 사토시 500억달러

올해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가격이 강세를 보인 가운데, 상반기 말 기준 전 세계 가상화폐 백만장자 수가 1년 만에 95% 늘어나 17만여명을 기록했다. 이는 전례 없는 증가세다.

영국의 투자이민 컨설팅 업체인 헨리엔파트너스는 27일(현지시간) 자산정보업체 뉴월드 웰스 등을 인용한 2024 가상화폐 자산 보고서

를 넘어섰으며, 이후 상승분을 일부 반납하면서 6월 말 6만 달러 수준을 기록했다.

가상화폐 관련 업체 헵트레이의 헨리 버로스 최고경영자(CEO)는 이전 세대의 부가 주로 주식·부동산에서 만들어진 반면 현재는 가상화폐 분야에서 나오고 있다고 평가했다.

헨리엔파트너스 측은 가상화폐를 보유한 자



산을 숫자가 급증한 배경에는 미국 내 비트코인·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출시에 따른 기관 자금 유입 등이 있다고 해석했다. 한편 경제매체 마켓워치는 앞선 외신 보도와 보고서 등을 인용해 비트코인의 창시자로 알려진 '나카모토 사토시'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한 개인

을 통해 6월 말 기준 가상화폐를 100만 달러(약 13억 3000만원)어치 넘게 소유한 자산가가 17만2300명이라고 밝혔다.

이들 백만장자의 절반가량은 '대장주' 비트코인 보유자였다. 비트코인 백만장자 숫자는 전년 대비 111% 늘어난 8만1400명이었다.

같은 기간 가상화폐를 1억 달러(약 1336억원)어치 이상 보유한 자산가는 79% 늘어난 325명, 10억 달러(약 1조 3000억원)어치 이상 보유한 자산가는 27% 늘어난 28명이었다.

이 가운데 비트코인을 1억 달러어치 이상 보유한 자산가는 100% 늘어난 156명, 10억 달러어치 이상 보유한 자산가는 83% 늘어난 11명이었다.

지난해 6월 3만 달러 수준이었던 비트코인 가격은 올해 들어 급등해 3월 한때 7만3000달

이며 보유 규모가 500억 달러(약 66조8000억원) 가까이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창업자 자오창펑은 바이낸스코인(BNB) 390억 달러(약 52조1000억원)어치를 갖고 있고, 다른 거래소인 제미니의 창업자인 타일러 윙클보스와 캐머런 윙클보스 형제는 33억 달러(약 4조4000억원) 규모 7만개에 가까운 비트코인을 보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합뉴스

러, 이틀째 우크라이나 전역 대공세...키이우서 폭발음

최소 6명 사망...러 전략폭격기 이륙에 공습경보 발령

러시아가 27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전역을 공습해 최소 6명이 사망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이날 새벽 러시아군의 공습으로 우크라이나 남동부 도시 크리비리흐에서 호텔이 무너지며 3명이 사망했다.

크리비리흐 동쪽 자포리자에서는 무인기(드론) 공격으로 3명이 숨졌다.

수도 키이우에서도 오전에 강력한 폭발이 관측됐다. 키이우 당국은 "방공망이 도시로 날아온 모든

발사체를 격추했다"고 밝혔다.

EFE 통신은 흐멜니츠키, 수미, 미콜라이우에서도 폭발이 감지됐다고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러시아군이 쏜 미사일 10기 중 5기를, 이란산 사헤드를 포함한 드론 81기 중 60기를 각각 격추했다고 밝혔다. 드론 중 하나는 벨라루스 영공으로 넘어갔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날 오전 러시아 서부의 영겔스 비행장에서 장거리 전략폭격기 Tu-95MS 여러 대가 이륙했음을 확인하고 전역에 공습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

다. 러시아는 전날에도 드론과 미사일을 동원해 우크라이나 여러 도시를 공습해 다수 사상자를 냈다.

키이우 외곽에서는 드니프로강의 수력발전소 등이 공격받아 정전·단수 사태를 빚었다.

북서부 루츠크와 지토미르, 동부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와 자포리자 등지에서 모두 7명이 숨지고 47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

이날 데니스 슈미할 우크라이나 총리는 "어제 러시아가 집속탄 미사일 수십발로 배전·변전시설을 공격했다"면서 보호 대책을 강화한 덕에 피해가 적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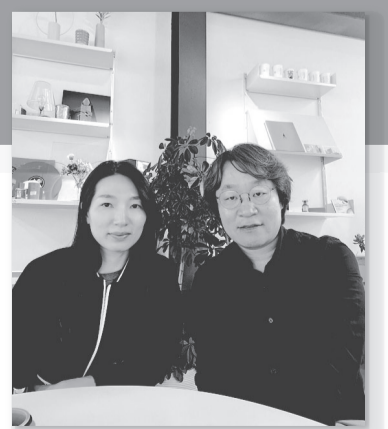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려나/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려나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어느나/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 이호동 <달이 되려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북스